춘사(春詞)

1.
압개예 안개 것고 뒫뫼희 히 비췬다
ᄇᆡ떠라 ᄇᆡ떠라
밤믈은 거의 디고 낟믈이 미러 온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옥 됴타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띄워라 배띄워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1]
강촌에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2.
날이 덥도다 믈 우희 고기 ᄠᅳᆫ다
닫드러라 닫드러라
갈며기 둘식 세식 오락가락 ᄒᆞᄂᆞᆫ고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낫대ᄂᆞᆫ 쥐여 잇다 濁탁酒쥬ㅅ甁병 시릿ᄂᆞ냐

날이 덥도다 물 위에 고기 떴다
닻 올려라 닻 올려라
갈매기 둘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낚싯대는 쥐여 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3.
東동風풍이 건듣 부니 믉결이 고이 닌다
돋ᄃᆞ라라 돋ᄃᆞ라라
東동胡호를 도라보며 西서湖호로 가쟈스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압뫼히 디나가고 뒷뫼히 나아온다

동풍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 인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꾸나[2]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4.
우ᄂᆞᆫ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말가ᄒᆞᆫ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뒤노ᄂᆞ대

우는 것이 뻐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아한 깊은 못에 온갖 고기 뛰논다

5.
고운 ᄇᆞᆫ티 쬐얀ᄂᆞᆫᄃᆡ 믉결이 기름ᄀᆞᆺ다
이어라 이어라
그믈을 주어두랴 낙시를 노흘일가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濯탁纓영歌가의 興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고운 볕 쬐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그물을 던져둘까 낚시를 놓으리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탁영가[3]의 흥이 나니 고기도 잊었도다.

6.
夕셕陽양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쟈
돋디여라 돋디여라
岸안柳류汀뎡花화ᄂᆞᆫ 고비고비 새롭고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公공을 불리소냐 萬만事ᄉᆞ를 생각ᄒᆞ랴

석양이 비꼈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돛 내려라 돛 내려라
언덕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정승을 부러워할소냐 세상만사 생각하랴

---

[1]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노를 젓을 때 '찌그덩'나는 소리의 의성어와 어부가 외치는 소리의 결합)
[2] 동풍이 불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로 이동하는 장면
[3] 굴원의 <어부사>에 있는 노래. '탁영'은 갓끈을 씻는다는 뜻임.

7.
防방草초를 븰와 보며 蘭난芷지도 뜨더보쟈
비셰여라 비셰여라
一일葉엽片편舟쥬에 시른 거시 므스것고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갈 제는 ᄂᆡ뿐이오 올 제는 ᄃᆞᆯ이로다

8.
醉취하야 누얻다가 여흘 아래 ᄂᆞ리려다
비미여라 비미여라
落락紅홍이 흘러오니 桃도源원이 갓갑도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人인世세紅홍塵딘이 언메나 ᄀᆞ렷ᄂᆞ니

9.
낙시줄 거더노코 蓬봉窓창의 ᄃᆞᆯ을 보쟈
닫디여라 닫디여라
ᄒᆞ마 밤들거냐 子ᄌᆞ規규소릐 ᄆᆞᆰ게 난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나믄 興흥이 無무窮궁ᄒᆞ니 갈 길흘 니젓땃다

10.
來릐日일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몃덛새리
비브텨라 비브텨라
낫대로 막대삼고 柴싀扉비를 ᄎᆞ자보쟈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父부生생涯애는 이렁구러 디낼로다

꽃풀을 바라보며 난초 지초를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갈 때는 나 뿐이오 올 때는 달이로다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리련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붉은 꽃이 흘러오니 무릉도원 가깝도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세상의 티끌이 얼마나 가렸는고

낚싯줄 걷어 놓고 봉창[4]의 달을 보자
닻 내려라 닻 내려라
벌써 밤 들었나 두견 소리 맑게 난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었도다

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잠깐[5] 새리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낚싯대로 지팡이 삼고 사립문 찾아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어부의 생애는 이럭저럭 지내도다

[4] 배에 거적을 씌운 틈 사이
[5] 순식간에

하사(夏詞)

1.
구즌 비 머저가고 시낸물이 묽아 온다
ᄇᆡ떠라 ᄇᆡ떠라
낫대를 두러메니 기픈 興흥을 禁금 못 할돠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煙연江강疊텹嶂쟝은 뉘라셔 그려낸고

2.
년 닙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쟝만마라
닫드러라 닫드러라
靑쳥蒻약笠립은 써잇노라 綠녹蓑사依의 가져오냐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ᄒᆞᆫ 白ᄇᆡᆨ駒구ᄂᆞᆫ 내 좃ᄂᆞᆫ가 제 좃ᄂᆞᆫ가

3.
마람 닙희 ᄇᆞ람나니 篷봉窓창이 서놀코야
돋ᄃᆞ라라 돋ᄃᆞ라라
녀름바람 뎡ᄒᆞᆯ소냐 가ᄂᆞᆫ 대로 ᄇᆡ시켜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北북浦포南남江강 이 어ᄃᆡ 아니 됴흘러니

4.
믉결이 흐리거든 발을 싯다 엇더ᄒᆞ리
이어라 이어라
吳오江강의 가쟈ᄒᆞ니 千쳔年년怒노濤도 슬플로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楚초江강의 가쟈 ᄒᆞ니 漁어腹복忠튱混혼 낟글셰라

5.
萬만柳류綠녹陰음 어린 고대 一일便편苔틱磯긔 奇긔特특하다
이어라 이어라
ᄃᆞ리예 다 ᄃᆞᆫ거든 漁어人인爭징渡도 허믈마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鶴학髮발老로翁옹 만나거든 雷뢰澤턱讓양居거 效효側측하쟈

굿은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낚시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할러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안개와 강 첩첩한 봉우리는 뉘라서 그려내었는가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마라
닻 올려라 닻 올려라
대삿갓은 써 있노라 푸른색의 도롱이[6]를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갈매기는 나를 쫓는가 내가 저 갈매기를 쫓는가

마름(풀 이름) 잎에 바람나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하겠느냐 가는 대로 배를 맡겨 두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북포와 남강이 어디 아니 좋을런가[7].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 들 어떠하리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오강[8]에 가자하니 오자서 원혼 슬프도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초강에 가자하니 굴원의 충혼[9] 혹 낚을라.

버들 푸르게 자란 곳 에 이끼 낀 돌 하나 참 좋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다리에 다다르거든 어부들이 앞다투어 건너려고 싸우는 것을 허물치 마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머리 하얗게 센 늙은이 만나면 뇌택의 자리양보[10] 본 받자

---

[6] 짚 따위로 만든 비옷
[7] 둘 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임.
[8] 오자서가 참소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내 눈을 빼어 오의 동쪽 문에 걸어 월이 쳐들어와 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함. 오왕 부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오자서의 시체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오강에 버리게 하니, 큰 파도가 일고 후에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했다는 고사.
[9] 초의 굴원이 회왕을 섬겼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멱라수에 빠져 죽음. 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물고기 배(魚腹)속의 충성심이라 함.
[10] 순임금이 뇌택에서 고기를 낚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양보했다는 고사

6.
긴 날이 져므ᄂᆞᆫ 줄 興흥의 미쳐 모ᄅᆞ도다
돋디여라 돋디여라
빗대를 두드리고 水슈調됴歌가를 블러 보쟈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欸애乃내聲셩中듕에 萬만古고心심을 긔 뉘알고

긴 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몰랐도다
돛 내려라 돛 내려라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11]를 불러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애내성중의 만고심[12]을 누가 알고

7.
夕셕陽양이 됴타마ᄂᆞᆫ 黃황昏혼이 갓갑거다
ᄇᆡ세여라 ᄇᆡ세여라
바회 우희 에구븐 길 솔 아래 빗겨 잇다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碧벽樹슈鶯앵聲셩이 곧곧이 들리ᄂᆞ다

석양이 좋다만은 황혼이 가깝도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바위 위 굽은 길 소나무 아래 비껴 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푸른 나무에 꾀꼬리 소리 곳곳에 들리는구나.

8.
몰괘 우희 그믈 널고 둠 미틔 누어 쉬쟈
ᄇᆡ매어라 ᄇᆡ매어라
모긔를 뮙다 ᄒᆞ랴 蒼창蠅승과 엇더ᄒᆞ니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다만 한 근심은 桑상大대夫부 드르려다

모래 위에 그물 널고 둠[13] 밑에 누워 쉬자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모기를 밉다 하랴 쉬파리[14]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다만 한 근심은 상대부[15]가 들을까 두렵구나

9.
밤 ᄉᆞ이 風풍浪낭을 미리 어이 짐쟉ᄒᆞ리
닫디여라 닫디여라
夜야渡도橫횡舟쥬를 뉘라셔 닐럿ᄂᆞᆫ고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澗간邊변幽유草초도 眞진實실로 어엿브다

밤 사이 풍랑을 미리 어찌 짐작하리
닻 내려라 닻 내려라
야도횡주[16]를 그 누가 말했던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개울가의 향기나는 풀이 진실로 어여쁘다.

10.
蝸와室실을 ᄇᆞ라보니 白빅雲운이 둘러잇다
ᄇᆡ븟텨라 ᄇᆡ븟텨라
부들부체 가라 쥐고 石셕逕경으로 올라가쟈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翁옹이 閑한暇가터냐 이거시 구실이라

와실[17]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싸고 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18] 가로 쥐고 석경[19]으로 올라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어옹이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

[11] 뱃노래
[12] 슬픈 뱃노래 가운데 스며든 오랜 된 근심(=임금을 그리는 마음)
[13] 풍랑에 밀려오는 해조류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하여 쌓아 볏짚(마람)으로 둘러놓아 썩히는 것으로 해안에 퇴비를 모아두는 것
[14] 간신을 함축
[15] 중국 전한 무제 때의 조정의 간신, 상홍양을 일컬음. 간신의 대명사로 쓰임
[16] 들 가운데 있는 시내의 건널목에 빈 배만 매어 있음
[17] 달팽이 집, 자신의 작은 집(=윤선도의 낙서재)을 일컬음
[18] 풀의 한 종류인 부들로 만든 부채
[19] 낙서재가 보이는 맞은편 산 중턱 바위산에 있는 '동천석실' 이곳에서 윤선도는 다도를 익히고 시를 씀

추사(秋詞)

1.
物믈外외예 조ᄒᆞᆫ 일이 漁어夫부生ᄉᆡᆼ涯애 아니러냐
ᄇᆡ떠라 ᄇᆡ떠라
漁어翁옹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四ᄉᆞ時시興흥이 ᄒᆞᆫ가지나 秋츄江강이 읃듬이라

2.
水슈國국의 ᄀᆞᆯ히 드니 고기마다 ᄉᆞᆯ져 읻다
닫드러라 닫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ᄀᆞ지 容용與여ᄒᆞ쟈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人인間간을 도랴보니 머도록 더옥 됴타

3.
白백雲운이 니러나고 나모 긋티 흐느긴다
돋ᄃᆞ라라 돋ᄃᆞ라라
밀믈의 西셔湖호ㅣ오 혈믈의 洞동湖호가쟈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白백蘋빈紅홍蓼료ᄂᆞᆫ 곳마다 景경이로다

4.
그러기 떳ᄂᆞᆫ 박긔 못 보던 뫼 뵈ᄂᆞ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ᄒᆞ려니와 趣취ᄒᆞᆫ 거시 이 興흥이라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夕셕陽양이 ᄇᆞ이니 天텬山산이 金금繡슈ㅣ 로다

5.
銀은脣슌玉옥尺쳑이 몃치나 걸렷ᄂᆞ니
이어라 이어라
蘆로花화의 블부러 ᄀᆞᆯ히야 구어 노코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딜병을 거후리혀 박구기예 브어 다고

6.
녑ᄇᆞ람이 고이 부니 ᄃᆞ론 돋긔 도라와다
돋디여라 돋디여라
瞑명色식은 나아오ᄃᆡ 淸청興흥은 머러 읻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紅홍樹슈 淸청江강이 슬믜디도 아니ᄒᆞᆫ다

세속을 떠난 곳에서 좋은 일이 어부의 생활이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고기잡이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사계절 흥취가 다 좋지만 그 중에도 가을 강이 제일이라.

수국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다
닻 올려라 닻 올려라
넓고 맑은 물에서 마음껏 놀아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 세상을 돌아 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흰 구름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흐느낀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밀물에 서호요, 썰물에 동호로 가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흰 마름 붉은 여뀌는 곳곳마다 경치로다.

기러기 떠 있는 밖에 못 보던 산 보이는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낚시질도 하겠지만 내가 얻는 것은 (자연에서의) 흥이로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석양이 눈부시니 온갖 산이 금수(금빛 비단)로다.

흰 아가미 큰 고기들이 몇이나 걸렸는고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갈대꽃에 불 붙여[20] 골라서 구워 놓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질흙병(=술병)을 기울여서 바가지에 부어다오.

옆바람이 고이 부니 돛을 내리고 돌아왔다
돛 내려라 돛 내려라
어스름은 다가오되 맑은 흥은 멀었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단풍잎 맑은 강이 싫거나 미워지지 않는구나

[20] 갈대꽃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의미

7.
흰 이슬 빈견ᄂᆞᆫ듸 불근 ᄃᆞᆯ 도다온다
ᄇᆡ세여라 ᄇᆡ세여라
鳳봉凰황樓루 渺묘然연ᄒᆞ니 淸쳥光광을 눌을 줄고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玉옥兎토의 ᄯᅴᄂᆞᆫ 藥약을 豪호客긱을 먹이고쟈

8.
乾건坤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드메오
ᄇᆡ매여라 ᄇᆡ매여라
西셔風풍塵딘 몯미츠니 부체ᄒᆞ야 머엇ᄒᆞ리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드론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ᄒᆞ리

9.
옷 우희 서리오ᄃᆡ 치운 줄을 모ᄅᆞᆯ로다
닫디여라 닫디여라
釣됴船션이 좁다 ᄒᆞ나 浮부說셜과 얻더ᄒᆞ니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ᄉᆞ臥와
ᄂᆡ일도 이리 ᄒᆞ고 모뢰도 이리 ᄒᆞ쟈

10.
松숑間간石셕室실의 가 曉효月월을 보쟈 ᄒᆞ니
ᄇᆡ브텨라 ᄇᆡ브텨라
空공山산落락葉엽의 길흘 엇디 아라볼고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白빅雲운이 좃차오니 女녀蘿라依의 므겁고야

흰 이슬 내렸는데 밝은 달 돋아온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봉황루[21] 아득하니 맑은 빛을 누굴 줄꼬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옥토끼 찧는 약을 호걸을 먹이고 싶구나.

건곤[22]이 제각기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배 매어라 매 매어라
서풍 먼지 못 오는데 부채질 하여 무엇하리[23]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들은 말 없었으니 귀 씻어서 무엇하리.

옷 위에 서리가 내리건마는 추운 줄을 모르겠도다.
닻 내려라 닻 내려라
낚싯배가 좁다고 하지만 덧없는 속세와 비교한다면 어느편이 낫겠느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하며 지내자

솔숲 사이 내 집 가서 새벽달을 보자 하니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공산 낙엽에 길을 어찌 찾아갈꼬[24]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흰 구름이 따라오니 입은 옷도 무겁구나[25].

---

[21] 임금이 계신 곳
[22] 세상
[23] 서풍진은 서풍에 일어나는 먼지를 부채로 가렸던 고사인데, 조정의 정보가 보길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함축함.
[24]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삶의 공간
[25] 자연과 하나가 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

동사(冬詞)

1.
구룸 거둔 후의 힌빗치 두텁거다
ᄇᆡ떠라 ᄇᆡ떠라
天텬地디閉폐塞식 호ᄃᆡ 바다흔 依의舊구ᄒᆞ다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ᄀᆞ업슨 믉결이 깁편 ᄃᆞᆺ ᄒᆞ여잇다

2.
주대 다ᄉᆞ리고 ᄇᆡᆺ밥을 박알ᄂᆞ냐
닫드러라 닫드러라
瀟쇼湘샹洞동庭뎡은 그믈이 언다 ᄒᆞᆫ다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이때예 漁어釣됴ᄒᆞ기 이만한 ᄃᆡ 업도다

3.
여튼 갠 고기들히 먼 소ᄒᆡ 다 갇ᄂᆞ니
돋다라라 돋다라라
져근덛 날 됴흔 제 바탕의 나가보쟈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밋기 곧 다오면 굴근 고기 믄다 ᄒᆞᆫ다

4.
간밤의 눈갠 後후에 景경物믈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ᄂᆞᆫ 萬만頃경琉류璃리 뒤희ᄂᆞᆫ 天텬疊텹玉옥山산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仙션界계ㄴ가 佛불界계ㄴ가 人인間간이 아니로다

5.
그믈 낙시 니저 두고 ᄇᆡᆺ젼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개ᄅᆞᆯ 건너고쟈 멷 번이나 혜여본고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無무端단ᄒᆞᆫ 된ᄇᆞ람이 힝혀 아니 부러올까

6.
자라가ᄂᆞᆫ 가마괴 먿낟치 디나거니
돋디여라 돋디여라
압길히 어두우니 暮모雪셜이 자자뎓다
至지矧국悤총 至지矧국悤총 於어思사臥와
鵝아鴨압池디ᄅᆞᆯ 뉘텨서 草초木목斬참을 싣돋던고

구름이 걷힌 후에 햇빛이 두텁게 내리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천지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막혀 생기를 잃었건만 바다는
예전과 다를 바 없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끝없이 이어진 물결이 비단을 편 듯 아름답구나

낚대 챙기고 뱃밥[26]은 박았느냐
닻 올려라 닻 올려라
소상강과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 한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때에 고기잡기 이만한 데 없도다..

옅은 갯벌 고기들이 먼 소로 다 갔으니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잠깐 날 좋은 때 바다에 나가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 문다 한다.

지난 밤 눈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앞에는 맑은 바다, 뒤에는 겹겹이 둘러 있는 흰 산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곳이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세상은 아니로다

그물 낚시 잊어두고 뱃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앞 갯벌 건너고자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던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어디서 강한 바람이 행여 불어올까 두렵구나.

자러가는 까마귀 몇 마리 지나갔느냐
돛 내려라 돛 내려라
앞길이 어두우니 저녁눈이 자욱하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아압지[27]를 누가 쳐서 초목참[28] 씻었던가

---

[26] 뱃밥은 겨울에 방치하였던 배를 손질하는 것이다. 배를 방치하면 배의 나무판자 사이가 틈이 생겨 물이 들어온다. 그 틈새를 삼나무 껍질로 막는 것

[27] 중국 당나라 때에 오원제가 회서에서 난을 일으켰을 당시, 이소라는 사람이 눈 오는 날 밤에 채성을 공격할 때 오리떼를 놀라게 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용해 성을 함락시켰다는 못.

[28] 풀과 나무까지 느꼈던 부끄러움

7.
丹단崖애翠취壁벽이 畵화屛병 ᄀᆞᆺ티 둘럿ᄂᆞᆫᄃᆡ
ᄇᆡ셰여라 ᄇᆡ셰여라
巨거口구細셰鱗린을 낟그나 몯 낟그나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孤고舟쥬蓑사笠립에 興흥계워 안잣노라

붉은 절벽 푸른 절벽 그림병풍같이 둘렀는데
배 세워라 배 세워라
큰 주둥이 가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낚든, 못 낚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외로운 배에 도롱이 입고 삿갓 쓰고 흥겨워 앉았노라.

8.
믉ᄀᆞ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싁싁ᄒᆞᆫ고
ᄇᆡ매여라 ᄇᆡ매여라
머흔 구룸 恨ᄒᆞᆫ티 마라 世세上샹을 ᄀᆞ리온다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波파浪랑聲셩을 厭염티 마라 塵딘暄훤을 막ᄂᆞᆫ또다

물가에 외롭게 선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한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 원망 마라 인간 세상을 가려준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 소리 막는도다.

9.
滄창洲쥬吾오道도를 녜브터 닐럳더라
닫디여라 닫디여라
七칠里리 여흘 羊양皮피 옷슨 긔 얻더 ᄒᆞ니런고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千쳔六뉵白빅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ᄒᆞ던고

창주오도[29]를 예부터 일렀더라
닻 내려라 닻 내려라
칠리탄에 양피 옷은 그 어떤 사람이런가[30]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십년간 낚시질[31]은 손꼽아 볼 때 어떠하던가.

10.
어와 져므러간다 宴연息식이 맏당토다
ᄇᆡ븟텨라 ᄇᆡ븟텨라
ᄀᆞᄂᆞᆫ 눈 ᄲᅳ린 길 블근 곳 흣더딘 ᄃᆡ 흥치며 거러가셔
至지匊국悤총 至지匊국悤총 於어思사臥와
雪셜月월이 西셔峰봉의 넘도록 松숑窓창을 비겨 잇쟈

아, 날이 저물어 간다. 쉬는 것이 마땅하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에 붉은 꽃이 흩어진 데 흥겨워하며 걸어가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눈 위에 비친 달빛이 서산을 넘도록 송창에 기대어 있자.

---

[29] "창주가 나의 도"라는 말로 두보 시의 "나의 道 창주에 붙이네(吾道付 滄洲)"라는 구절을 인용함. 신선이 사는 곳 또는 강호.

[30] 중국 후한 시대 사람인 엄자릉의 고사. 엄자릉은 광무제 유숙의 죽마고우로, 유숙이 거병하자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이후 유숙이 황제가 되자, 부춘산으로 은거하여 칠리탄(=동강의 여울) 에서 양피옷을 입고 낚시질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황제가 된 유숙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함.

[31] 강태공의 고사. 강태공은 10년 동안 위수에서 낚시를 하면서 섬길만한 사람을 기다리다 주나라 문왕을 만났다.

【 51 – 5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본래 산수를 좋아하여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속리산 등의 절경에 모두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 높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으며, 거기서 본 하늘과 땅의 광대함을 알았고, 또 천 길 만 길 솟아 있는 기암괴석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자란 소나무, 잣나무들을 보았으며 구름이 둘러싼 사이로 맑은 시내와 깨끗한 바위들, 깊숙한 숲들이 속세의 잡념을 씻어주고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았다.

[A]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특히 좋아한다. 그리하여 가끔씩 그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고집스러운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리하여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곧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경치의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늘 마음에 허전함을 느꼈다.

[B] 나에게는 종남(終南)에 별장이 하나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틈 사이사이에 소나무나 회양목 등을 왜소하게 생긴 놈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인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펑펑 솟아나는 것을 보며 그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인 이도 더러 있었지만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작지만 큰 산을 본떴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중략]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그리하여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鄭虔)이나 왕유(王維)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그런데 ㉡ 이곳에서 나는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없이 바라보아도 싫증나지 않으니, 눈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요한 밤, 잠이 오지 않을 때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쏴아 하고 쏟아지는 ㉢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의 집은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및 아름다운 색깔 등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말미암아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들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石假山瀑布記)」 –

(나)

秋 · 3

빅운(白雲)이 니러나고 나모 긋티 흐느긴다 / 돌 ᄃᆞ라라 돌 ᄃᆞ라라 / 밀믈의 셔호(西湖)ㅣ오 혈믈*의 동호(東湖) 가쟈 /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 ㉣ 빅빈홍료(白蘋紅蓼)*ᄂᆞᆫ 곳마다 경(景)이로다

冬 · 8

믉ᄀᆞ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싁싁ᄒᆞᆫ고 / ᄇᆡ 무여라 ᄇᆡ 무여라 / 머흔 구룸* ᄒᆞᆫ(恨)티 마라 세샹(世上)을 ᄀᆞ리온다 /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 파랑셩(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ᄂᆞᆫ도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중에서 –

* 혈믈 : 썰물 ** 빅빈홍료(白蘋紅蓼) : 흰 마름꽃과 붉은 여뀌꽃
*** 머흔 구룸 : 험한 구름 ****염(厭)티 : 싫어하지
***** 딘훤(塵喧) : 속세의 시끄러움

(다) 산사람은 짐승을 좋아하여 뽕나무 활로 사냥을 즐기나
난 홀로 낚시 즐기는 남녘 늙은이라오
가늘고 가는 명주실로 작은 그물 만들고
맑은 연못에서 옥비늘 반짝이는 물고기를 잡노라
민첩한 칼놀림에 ㉤ 물소리도 맑아라
돌 위에 앉아 대하는 건 청산의 경치
전날 서울에서 물고기를 샀을 때
그때의 썩은 냄새는 지금도 눈살 찌푸리게 한다오

– 박순, 「어부사(漁父辭)」 –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가), (나), (다) 모두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 (나)와 달리 (다)는 자연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③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인공적 조형물도 소재로 다루고 있다.
⑤ (다)와 달리 (가), (나)는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52. (가)의 [A]와 [B]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 것은?

① [A]에는 [B]에 드러난 '나'의 행위에 대한 동기가 제시된 것 같아.
②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A]에서는 긍정적이지만 [B]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
③ [A]에 나타난 내적 갈등이 [B]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어.
④ [A]에 드러난 자연에 대한 분석적 태도가 [B]에서는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어.
⑤ [B]에 드러난 '나'의 행위는 [A]에 드러난 '나'의 성향과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

53. (나)에서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 보 기 >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① 빅운(白雲) ② 나모 ③ 동호(東湖)
④ 외로온 솔 ⑤ 파랑셩(波浪聲)

54. <보기 1>은 (다)에 대한 해설 중 일부이다.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

이 작품은 작가가 64세인 1586년에 서울에서의 영의정직을 사직하고 서울의 북쪽 지방인 지금의 포천 지방에서 소일할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작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작가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서 대비 관계를 이루는 시어의 짝을 찾아볼 수 있다.

< 보기 2 >

가. 돌 : 청산 나. 낚시 : 사냥
다. 썩은 냄새 : 옥비늘 라. 명주실 : 맑은 연못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다, 라

55. (나)의 '秋 · 3'이 <보기>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이라 가정할 때,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을 법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산두(山頭)에 한운(閒雲)이 기(起)ᄒᆞ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ᄒᆞ니 이 두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이현보, 「어부가 4」 –

① 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의 기법을 활용하자.
② 후렴구를 첨가하여 음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자.
③ 자연을 대하는 흥취는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④ 구름이 일어나는 광경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발상은 그대로 유지하자.
⑤ 원시와는 달리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하여 표현하면 좋겠어.

56. 소재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할 때, ㉠~㉤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다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A]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실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다) 춘사 8
취흥야 누얻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비 믜여라 비 믜여라
락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갑도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세(人世) 홍딘(紅塵)**이 언메나 ᄀᆞ렷느니

하사 2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쳥약립(靑翁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無心)ᄒᆞᆫ 빅구(白鷗)는 내 좃ᄂᆞᆫ가 제 좃ᄂᆞᆫ가

추사 1
믈외(物外)예 조ᄒᆞᆫ 일이 어부(漁父) 싱애 아니러냐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ᄉᆞ시(四時) 흥(興)이 ᄒᆞ가지나 츄강(秋江)이 은듬이라

동사 8
믉ᄀᆞ의 외로온 솔 혼자 어이 싁싁ᄒᆞ고
비 믜여라 비 믜여라
ⓔ머흔*** 구룸 흔티 마라 세샹을 ᄀᆞ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파랑셩(波浪聲)****을 염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ᄂᆞᆫ또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락홍: 낙화, 떨어진 꽃
** 홍딘: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머흔: 험한
**** 파랑셩: 큰 물결과 작은 물결의 소리
***** 딘훤: 속세의 시끄러움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② (가)와 (다)에는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나)와 (다)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14.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산골로 가자', '다가리에 살자'라는 표현에서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② '눈'과 '흰 당나귀'의 흰색 이미지를 중첩시켜 순결함에 대한 '나'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③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은 '다가리'의 내밀함과 고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 행위에서 '나'의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⑤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다.

15.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영석, <강상조어도>

배를 타고 낚싯대를 드리운 어부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비들이 어부로서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으며, 많은 그림에 주된 소재로 등장한다. 어부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그림 속 배경인 자연은 선비들의 관념에 의해 이상화된 자연이라 할 수 있으며, 삿갓을 쓰거나 도롱이를 입은 소박한 차림은 어부의 삶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부의 이미지는 많은 문학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다) 역시 그러한 작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① '도원(桃源)이 갓갑도다'라는 표현은 <보기>에서 말하는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② '청약립(青翳笠)', '녹사의(綠蓑衣)' 등의 소재를 통해 <보기>에서 말하는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내 좃는가 제 좃는가'에서 자연에 대한 선비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물외(物外)예 조흔 일'에서 선비들이 '어부'로서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림마다 그렷더라'라는 표현에서 '어부'가 상징적 이미지로 즐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아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이층으로 올라간다./(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닥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깔닥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 박목월, 「층층계」 중에서

②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중에서

③ 그날 밤 금계랍 같은 눈이 내리던/ 오한(惡寒)의 땅에// 오늘은 발열(發熱)처럼 복사꽃이 핀다.// 목이 타는 봄가뭄./ 아 목이 타는 봄가뭄.// 현기증(眩氣症) 나는 아지랑이만 일렁거리고.

– 김종길, 「황사현상」 중에서

④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중에서

⑤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부산—히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나는 공복의 가는 눈을 떠, 희미한 노등(路燈)을 본다. 띄엄띄엄 서 있는 포도 위에 잎새 없는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

– 오장환, 「황혼」 중에서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현재와 미래가 교차되고 있는 시간이다.

② ㉠이 동상과 환상의 시간이라면, ㉡은 성찰과 다짐의 시간이다.

③ ㉠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은 동적인 느낌을 주는 시간이다.

④ ㉠과 ㉡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환기되는 시간이다.

⑤ ㉠은 화자의 고뇌가 해소되는 시간이고, ㉡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다.

18. ⓐ ~ ⓔ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② ⓑ :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

③ ⓒ : 사물을 인격화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④ ⓓ : 상반된 의미를 가진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⑤ ⓔ :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언어 영역

4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틀한 볕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어
말없이 무릎 우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 것이고
㉠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삐여진 어깻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詩人)은 안다
'도스토이엡흐스키'며 '죠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엿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안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넋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볕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게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독판을 당기는구려

– 백석, 「허준*」 –

* 게사니 : '거위'의 방언.
* 허준 : 평북 출신의 소설가로 백석의 절친한 친구.

(나)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거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은 거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굽시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 서정주, 「침향」 –

(다)

고운 볕이 쬐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로다
　<춘사(春詞) 5>

석양이 비꼈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돛 디어라 돛 디어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생각하랴
　<춘사(春詞) 6>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 뜯어 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 갈 제는 내뿐이오 올 제는 달이로다
　<춘사(春詞) 7>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 도원(桃源)이 가깝도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인세 홍진(人世紅塵)이 얼마나 가렸나니
　<춘사(春詞) 8>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탁영가(濯纓歌) : 굴원이 쓴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부른 노래로, '탁영(濯纓)'은 '유유자적하는 삶'을 나타냄.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② (가)와 (다)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나)와 (다)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④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가)~(다)에는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14. (가)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할 때, 담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당신'이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치운 다리로' 지나가는 모습
② '당신'이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를 찾아가 '말없이' 위로하는 모습
③ '당신'이 '어드근한 방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
④ '당신'이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주는 모습
⑤ '당신'이 '목이 긴 시인' 앞에서 '바독판'을 당기는 모습

15.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처한 공간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② ⓐ는 화자가 지속적으로 머물 공간이고, ⓑ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머물 공간이다.
③ ⓐ는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공허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④ ⓐ와 ⓑ 모두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⑤ ⓐ와 ⓑ 모두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1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동일한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음절 수를 조절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일상에서 벗어난 탈속의 공간이다.
③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④ '그리운' 감정은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등의 시어로 강화된다.
⑤ '질마재 사람들'은 '침향'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네 계절을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작품은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삶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구, 반복, 비유, 의성어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작가는 어부의 삶에 의탁하여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했다.

① 매 수의 둘째행의 여음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과 같은 의성어는 노 젓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어부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④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인세 홍진(人世紅塵)'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는 것이 **뻐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갛고 깊은 소(沼)에 온갖 고기 뛰노누나
<춘(春) 4>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닻 들어라 닻 들어라
청약립(靑篛笠)은 써 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하(夏) 2>

㉢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닻 들어라 닻 들어라
만경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추(秋) 2>

㉣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한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내 :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징파 :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하자 :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 물결 소리.
* 염치 : 싫어하지.
* 진훤 : 속세의 시끄러움.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 :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숲'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② ㉡ : 세속에 '무심'한 '백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④ ㉣ : 외로운 '솔'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⑤ ㉤ : '파랑성'과 '진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
<춘(春) 7>

궂은 비 멎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 낫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 연강첩장(煙江疊嶂)*은 뉘라서 그려낸고
<하(夏) 1>

옷 위에 서리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
닻 내려라 닻 내려라
㉣ 조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어떠한가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추(秋) 9>

[A]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찌 씩씩한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사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일엽편주 : 한 척의 작은 배.
* 연강첩장 :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 조선 : 낚싯배.
* 부세 : 헛되고 덧없는 세상.
* 파랑성 : 물결 소리.
* 염치 : 싫어하지.
* 진훤 : 속세의 시끄러움.

37.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38. ㉠ ~ ㉤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달'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③ ㉢에서 '그려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첩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④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조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내일'과 '모레'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39.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강호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훌륭한 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④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어 영역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들은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대부들은 이들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들에게 있어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의 공간이자 완상의 대상이었다. 또한 자연은 영원불변한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天理)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궁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천리를 인간의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사대부들의 시조는 이러한 노력을 형상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 청산(靑山)ᄂᆞᆫ 엇뎨ᄒᆞ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ᄂᆞᆫ 엇뎨ᄒᆞ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후 5> –

위 시조에는 자연에 구현된 천리가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에서도 천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을 소재로 한 16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빈번히 드러나는데, 이는 무수한 좌절을 겪은 끝에 도덕적, 이념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실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던 당대 사

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사대부들은 당쟁과 외적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워진 현실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 시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자연은 여전히 천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먼 혼탁함과 부조리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에 몰입하고 그 흥취를 즐긴다. 그러는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거리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압개예 안ᄀᆡ 것고 뒫뫼희 히 비췬다
  ᄇᆡ떠라 ᄇᆡ떠라
밤믈은 거의 디고 낟믈이 미러 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옥 됴타 <춘 1>

우ᄂᆞᆫ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ᄒᆞᆫ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ᄂᆞ다 <춘 4>

긴 날이 져므ᄂᆞᆫ 줄 흥(興)에 미쳐 모ᄅᆞ도다
  돋디여라 돋디여라
빗대ᄅᆞᆯ 두드리고 수조가(水調歌)ᄅᆞᆯ 블러 보쟈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애내성 중에 만고심(萬古心)*을 긔 뉘 알고 <하 6>

수국(水國)에 ᄀᆞᄋᆞᆯ히 드니 고기마다 ᄉᆞᆯ져 읻다
  닫드러라 닫드러라
만경 징파(萬頃澄波)에 슬ᄏᆞ지 용여ᄒᆞ쟈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됴타 <추 2>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애내성 중에 만고심 : 주자의 '무이구곡가' 중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공의 뱃노래에 드러난 세상 만고의 근심'을 뜻함.

4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당시 경험한 현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이다.
②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는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③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16세기 사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은 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④ 16세기와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44. (가)의 맥락에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청산', '유수'는 모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를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② '만고에 프르르며', '주야애 긋디 아니ᄂᆞᆫ고'는 '청산'과 '유수'를 통해 드러난 보편타당한 이치의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초, 중장은 인간의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재진술한 것은,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종장은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 속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춘 1>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하는 '안ᄀᆡ'와 '히', '밤믈'과 '낟믈'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춘 4>에서 '어촌 두어 집'은 '벅구기'와 '버들숩'이 어우러진 가운데 '온갇 고기 뛰노'는 자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하 6>에서 '만고심'이란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추 2>에서 '만경 징파에 슬ᄏᆞ지 용여ᄒᆞ쟈'는 화자의 말은 자연에 몰입하여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추 2>에서 '머도록 더욱 됴타'는 것은 '인간'으로 제시된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고2 200609

51.④ 52.① 53.⑤ 54.④ 55.⑤ 56.①

5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올바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본래 그대로의 자연만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가)는 우리나라의 명산과 같은 본래 그 대로의 자연과 더불어 작가가 만든 폭포와 같은 인공적 조형물 역시 소재로 다루고 있다.

52. [출제의도] 글 속의 세부 내용을 올바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작가는 평소에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다니기 힘들어졌으며, 산수화를 감상하는 방법 을 써보기도 했지만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B]에서 인공적 조형물을 만들어 즐거움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 [출제의도] 작품 속 소재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 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물'은 속세와 떨어진 곳에 사는 시적 화자와 속세를 격리(隔離)하는 소재에 해당한다. (나)에서의 '파랑셩(波浪聲)' 역시 시적 화자가 속세 의 시끄러움을 멀리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54. [출제의도] 작품 속 시어 간의 관계에 대해 올바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산사람'과 '남녘 늙은이'가 대비를 이루며, '산사람'이 좋아하는 사냥과 '남녘 늙은이'가 좋아 하는 낚시 역시 대비를 이룬다. 또한 현재 시적 화자가 낚은 물고기의 옥비늘과 예전에 서울에서 물고기를 샀을 때의 썩은 냄새 역시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5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나)의 '秋·3'에는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한 부분이 없다. 자연을 대하는 시적 화자의 풍류적 태도가 드러날 뿐이다.

56. [출제의도] 소재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올바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으로부터 작가는 조금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진실에 가까운 생동감을 느낄 수 없어서 허전함을 간직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은 소재의 성격이 작가 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인 ㉡, ㉢, ㉣, ㉤과 구별된다.

고2 200709

13.② 14.⑤ 15.③ 16.① 17.② 18.④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몽상 속에서 아름다운 나타샤가 속삭이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춘사 8의 "인세(人世) 홍딘(紅塵)이 언메나 가렷나니", 동사 8의 "파랑셩(波浪聲)을 염티 마라 딘훤을 막는또다"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을 세부적으로 감상한다.
화자는 '아름다운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마가리'-오두막-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다. 눈이 푹푹 쌓이면 고립될 수 있고 깊은 산골은 사람이 드문 곳 이라는 점에서 두 시어는 이러한 마가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흰색은 그 속성상 순결함의 이미 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싶어 하는 순결함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 혼자 술을 마시며 몽상을 하는 화자의 모습에 서 외로운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이미지는 나와 있지 않기에 '나타샤'의 이미지는 반전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의 제목과 <보기>로 미루어 ㈐는 자신을 <보 기>의 어부로 자처하며 자연에 있는 어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도원'은 도교의 이상향인 무릉 도원을 뜻하며 화자가 있는 자연 공간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보기>의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 각각 삿갓과 도롱이를 뜻하는 '청약립'과 '녹사의'는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믈외예 조흔 일'은 세상을 벗어난 깨끗한 일을 뜻하는 데, 이는 곧 어부의 삶을 가리킨다. 어부의 삶을 깨끗한 삶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선비들이 어부의 삶을 흠모하고 바람직하게 여겼다는 <보기>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부를 그림마다 그렸다는 것은 어부가 많은 그림에 주된 소재로 등장했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다. 자연에 대한 선비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와 <보기>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한다.
[A]에서 화자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 삶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①에서도 화자는 '생활의 막다른 골목' 에서 '수척한 얼굴'을 만나는데 이는 힘겨운 생활 속 에서 지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며, '지쳐 내려오는 곡예사'도 이러한 화자를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17. [출제의도] 유사한 시어를 비교하여 그 성격을 파악한다.
㉠은 화자가 눈오는 밤 혼자 소주를 마시고 나타샤와 산골로 가 살고 싶은 소망을 꿈꾸는 몽상과 환상의 시간이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와 같은 구절을 통해 화자가 몽상에 잠겨 자신의 소망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생활에 지친 화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노신'을 떠올리며 굳세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에서는 '눈'과 '흰 당나귀'에서 흰색의 시각적 심상과 '응앙응앙' 하는 흰 당나귀의 울음의 청각적 심상이 어우러지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서른 먹은 사내'로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에서는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고 하여 등불을 사람처럼 말을 하는 인격화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 에서는 "~을 ~하지 마라, ~을 ~한다"의 구조의 시 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는 밥은 준비하고 반 찬은 장만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밥과 반찬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고3 201110

13.① 14.③ 15.① 16.⑤ 17.② 18.③

13.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허준'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 며, (나)는 '침향'을 만드는 '질마재 사람들'의 높은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허준'과 (나)의 '질마재 사람들'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 '당신'은 '허준'이다. 화자는 '허준'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물로 나타낸다면 긍정적 가치가 구현된 '허준'의 모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은 '허준'의 모습도 아니며 그로 인해 긍정적 가치도 드러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 한다.
ⓐ는 '허준'이 나들이를 온 공간으로 화자가 처한 공 간이다. 이는 '시인'으로 표현된 화자가 이곳에서 '허준'을 대하고 있는 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반면 (다)의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며 '도원 (桃源)에 가깝'게 느낀 데서 ⓑ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 및 그 효과를 파악 한다. ㉤은 '-ㄹ 제는 -뿐'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화되는 시적 의미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또는 자연 친화적 정서라고 한다. 이 표현이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②에서'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산골 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로 '침향' 을 만드는 장소이다.
이 표현은 '질마재 사람들'이 '침 향'을 만드는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정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침향'의 긍정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 곳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 곳을 '탈속의 공간'이라고 한 것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③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화자가 고기잡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의 화자가 실제의 어부가 아니라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니 화자는 어부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고3 예비시행

35.② 36.③

3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시조의 화자는 어촌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주는 흥취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이 시조에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여음이 중장과 종장사이에 규칙적으로 나온다.
③ 시조는 모두 4음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조 역시 4음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조에서 '바다'는 화자에게 합일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세계로 표현되어 있다.
⑤ 이 시조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고루 사용되어 있다.

36.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조의 추2는 가을을 맞이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가을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노는 계절이다. 그의 눈에 비친 살진 '고기'들은 그의 이런 느낌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4에서 뻐꾸기와 버들숲은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② 세속에 무심한 '백구'와 시적 화자는 누가 누구를 좇는지 모르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화자의 눈에 비친 '솔'의 씩씩함은 절개를 지키는 충직한 신하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절개를 부각시켰을 뿐이고, 이에 대해 갈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⑤ '파랑성'을 속세로부터 어부의 삶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고3 201404A

37.③ 38.④ 39.③

3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작품은 사계절에 따른 흥취와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춘 7>의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와 <추 9>의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① '무엇인가'와 '그려낸고', '씩씩한고'와 같이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는 문답으로, '그려낸고'와 '씩씩한고'는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지만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④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반복은 드러나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시어를 중심으로 시적 상황 이해하기
㉣에서 '조선'은 헛되고 덧없는 세상인 '부세'와 대조 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 공간에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조선'이 화자가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반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에서는 '달'을 배에 실어 함께 돌아오는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달'이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에서 '낫대'는 장마가 끝나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 는 어부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낫대'가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킨다는 진술은 적절 하다.
③ ㉢에서 화자는 '연강첩장'을 '그려낸고'라고 하며 자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강첩장'이 화자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은 '내일'과 '모레'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화자는 추위를 잊을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도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작품 비교하여 감상하기
[A]에서 '세상'과 '진훤'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구름'과 '파랑셩'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의 '명월'은 화자가 벗이 되고 싶은 대상이다.
<오답> ①<보기>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현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는 현실에 순응 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고 [A]에는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④ [A]에서 '물가'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을, '세상'은 화자가 떠나온 속세를 의미하므로 두 공간은 대비되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강호'와 '풍월 강산'은 모두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공간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는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A]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3 201610

43.② 44.③ 45.②

43.[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가)의 3문단에서는, 16세기에 이어 17세기의 시조 에서도 자연을 천리가 구현되어 질서와 조화를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유지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 현실의 혼란을 목격한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현실에 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 의하면, 자연을 지향함으로써 현실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16세기 시조의 인식은 당시 사림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되었다.
④ (가)의 1문단을 통해 사대부들이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에서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의 내용을 통해 16, 17세기 사대부들의 이와 같은 자연관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4.[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A]의 초, 중장에서는 '청산'과 '유수'에서 파악되는 자연의 영원불변함에 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을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한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1~2문단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청산'과 '유수'는 각각 오랜 시간 동안 푸르름을 유지 하며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른다는 점에서 천리의 영원불변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이러한 속성은 곧 인간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와 관련된 자연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연결한 것은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시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도 자연의 속성을 닮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종장의 내용은 (가)의 2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실에서도 천리를 구현하겠다는 태도와 연결할 수 있다.

45.[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춘 4>에서 안개 속에서 들락날락하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된 '어촌 두어 집'의 모습 은 '벅구기'와 '버들숩'을 배경으로 '온갖 고기 뛰노'는 자연물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어촌 풍경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춘 1>에서 자연의 봄 풍광은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하 6>의 '만고심'은 화자가 '수조가'를 부르면서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근심으로, 이는 자신이 즐 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결여된 현실을 떠올리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④ <추 2>에서 화자는 '고기마다 살져 읻'는 가을의 어촌 풍경에 감탄 하며 '만경 징파'에서 실컷 즐기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추 2>의 종장에서 '인간'은 '수국' 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멀수록 더욱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한다.